

## 결혼관계에 만족하는 사람은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을 더 많이 기억하는가?

이 경 성<sup>†</sup>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결혼생활에 만족한 수준에 따라서 배우자 행동에 대한 정보처리 및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결혼생활에 만족한 사람들은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보다 긍정적 행동을 더 많이 기억하고 이를 더 많이 반추하며 중요하게 처리한다고 가정하였다. 반면에 결혼생활에 불만족한 사람들은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보다 부정적 행동을 더 많이 기억하고 이를 더 많이 반추하며 더 중요하게 처리한다고 가정하였다. 기혼자 114명(남 45, 여 69)의 자료를 분석하여 결혼생활의 만족 여부, 성별 및 행동의 긍정성(긍정적 행동/부정적 행동)이 배우자의 행동을 기술한 개수, 배우자가 행동했을 때 떠오른 생각 혹은 기분의 개수, 그리고 행동의 중요도 평가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결혼생활에 만족한 사람들은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보다 긍정적 행동을 더 많이 기술하고, 더 반추하며, 긍정적 행동이 결혼생활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반면에 결혼생활에 불만족한 사람들은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의 정보처리 및 결과가 다르지 않았다.

주요어 : 결혼만족, 배우자 행동, 인지적 처리, 실증연구

---

\*

† 교신저자 :

E-mail :

한국에서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는 1991년 9.6건에서 2001년 6.7건으로 줄어든 반면 이혼율은 같은 기간 1.1건에서 2001년 2.8건으로 급증해서 하루 370여쌍의 부부가 이혼을 한다. 이 수치를 굳이 서구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이혼이 더 이상 서구의 사회문제만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 부부의 이혼에 대해서 관용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현재 그리고 미래의 부부들에게서 결혼생활의 만족은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열쇠일 수 있다. 그렇다면 결혼생활의 만족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결혼관계에서 인지와 결혼만족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대체로 결혼관계에 만족하는 부부와 불만족한 부부를 구분하고 이들의 인지 패턴이 서로 차이를 증명해 왔다. 구체적으로 결혼관계에 불만족한 배우자들은 부정적 사건들의 영향을 두드러지게 하고 긍정적 사건들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반면, 결혼관계에 만족한 배우자들은 부정적 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사건들의 영향을 강조하는 인지체계를 사용한다고 주장한다(e.g., Baucom & Epstein, 1990). 이 가정은 결혼생활에 만족한 사람들은 긍정적 사건이 가지는 함의를 극대화하는 정보처리를 하는 반면에 결혼생활에 불만족한 사람들은 부정적 사건이 가지는 함의를 극대화하는 정보처리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석에 근거해서 결혼만족 여부에 따라서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정보처리 및 결과가 달라지는지 살펴본다.

#### 행동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다룬 초기 연구들

1970년대 후반에 결혼만족을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초기 연구들에서는 만족한 부부들과 불만족한 부부들이 부정성, 부정적 행동의 교환 및 회피의 비율 등의 면에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횡단적 방법을 이용해서 연구했다. 추후 행동의 변화가 결혼만족의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관한 종단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이 연구들을 개관한 Karney와 Bradbury(1995)는 행동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고 연구들마다 그 방향과 크기가 상당히 다르다고 결론지었다(p.22). 예를 들어, Markman(1981)이나 Wills, Weiss, 및 Patterson(1974) 등의 연구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토론하는 동안 보상이 되거나 긍정적 행동을 주고 받은 사람들은 처벌이 되거나 부정적 행동을 주고 받은 사람들보다 결혼생활에 대해서 더 긍정적 평가를 했다. 반면에 Heavey, Layne, 및 Christensen(1993)의 연구에서는 다른 연구들과 달리 남편들의 부정성과 지나친 요구가 이후 아내들의 만족을 예측했다. 또한 Karney와 Bradbury(1997)의 연구에서도 아내들의 부정적 행동이 이후 남편들과 아내들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모순되는 결과들은 결혼관계에서 행동에 따른 강화가 추후 행동을 예측한다는 행동주의 관점으로 행동과 만족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게 하면서 행동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인지 개념을 도입하게 했다.

#### 인지적 변인이 행동과 결혼만족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1980년대에 결혼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행동과 결혼만족의 관계에 인지적 요인이 매개 혹은 조절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한다(e.g., Bradbury & Fincham, 1990; Baucom & Epstein, 1990). 즉, 이 연구들은 관계 기대, 신념 및 태도

등의 인지적 요인이 행동에 대한 정보처리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정보처리된 결과로 배우자 행동에 대한 해석, 지각 및 추후 반응이 달라진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에 따르면 배우자의 행동과 결혼만족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관계 기대, 신념 및 태도 등의 인지적 요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행동에 대한 정보처리 기제를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1) 배우자 행동에 대한 해석, (2) 자신, 배우자 및 관계에 그 행동이 주는 함의에 관한 지각, 및 (3) 이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관한 결정을 매개 혹은 조절하는 인지과정들이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지기제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은 널리 인식되어 왔으나(Arias & Beach, 1987; Berley & Jacobson, 1984; Bradbury & Fincham, 1987; Newman & Langer, 1983),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신 행동과 결혼만족의 관계에 인지적 요인이 매개 혹은 조절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는 많은 연구들은 결혼관계에 만족한 부부들과 불만족한 부부들의 인지 패턴이 다르리라고 가정하고 결혼만족과 인지적 요인의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결혼생활에 만족한 사람들은 긍정적 사건의 영향을 강조하고 부정적 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인지 패턴을 보이는 반면에 결혼생활에 불만족한 사람들은 긍정적 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부정적 사건의 영향을 강조하는 인지 패턴을 보인다는 가정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Bradbury와 Fincham(1993)은 여러 인지 변인들 가운데 귀인에 초점을 두고 이 가정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즉, 행복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긍정적 행동에 대해서 내적, 안정 및 전반(global) 귀인하고 상대의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 외적, 불안정 및 구체(specific) 귀인하여 행복을 고양시키고(relationship enhancing attribution)

불행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달리 상대의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는 내적, 안정 및 전반귀인하고 긍정적 행동에 대해서는 외적, 불안정 및 구체귀인하여 불만을 유지한다(distress maintaining attribution)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만족한 사람들은 행복을 고양시키는 귀인을 통해서 긍정적 사건의 영향을 강조하고 부정적 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반면, 불만족한 사람들은 불만을 유지시키는 귀인을 통해서 긍정적 사건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부정적 사건의 영향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귀인과 만족의 관계를 다루었다(e.g., Fincham, Beach, & Bradbury, 1989; Camper, Jacobson, Holtzworth-Munroe, & Schmalig, 1988).

이러한 연구들은 행동과 결혼만족의 관계에 인지 요인이 매개함을 입증한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기초가 되는 인지기제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 결과에 대한 이해가 제한된다. 예를 들어 결혼관계에 만족한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긍정적인 배우자 행동이 지니는 함의를 강조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 없이는 이론적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지기제 가운데 반추(rumination)가 배우자 행동에 대한 해석과 그 행동이 지니는 함의의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반추는 Nolen-Hoeksema (1987)에 의해서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 정서를 유지하는 기제로 소개되어 왔다.

#### 특정 사건에 대한 반추가 정서 강도에 미치는 영향

Nolen-Hoeksema(1987)는 우울한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스런 경험을 반복해서 생각하는 반추를 통해서 우울 정서를 유지하고 더 강화시킨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사람들이 고통스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주의를 다른 데로 분산하거나 그

사건에 대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부정적 정서가 감소되거나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고통스런 사건을 경험했을 때 주의를 다른 데로 분산하면 부정적 정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반면에 고통스런 상황을 반추하면 부정적 정서를 더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서 우울 정서가 유지되거나 더 강화되는 이유는 고통스런 사건을 경험했을 때 그 상황을 반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반추란 그 사건에서 자신의 증상, 증상의 원인 및 결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정서의 강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Nolen-Hocksema, 1991) 이 정서와 관련된 기억의 연결망을 활성화시키고 이에 대한 신념과 도식에 대한 인출가능성을 높인다(Bower, 1981). 이 논리에 따르면 우울한 사람들은 긍정적 사건을 반추하지 않고 부정적 사건을 반추하기 때문에 우울한 정서가 유지,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녀에 따르면 우울한 사람들은 우울한 사건을 반추함으로써 이 사건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와 관련된 기억이 활성화되어 이에 대한 생각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우울한 정서를 유지,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우울한 사람들의 우울 유지 기제를 결혼생활에 불만족한 사람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결혼생활에 불만족한 사람들은 긍정적 사건보다 부정적 사건을 반추함으로써 이 사건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기억이 활성화되어 이와 관련된 다양한 생각이 인출될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오래 동안 기억함으로써 불만족 수준을 유지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다. 반면에 결혼생활에 만족한 사람들은 부정적 사건보다 긍정적 사건을 반추함으로써 이 사건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기억이 활성화되어 이에 대한 생각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오래 동안 기억함으로써 만족수준이 유지 혹은 강화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설정하고 연구하였다.

**가설 1.** (가설 1-1) 결혼생활에 만족한 사람들은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보다 긍정적 행동들을 더 많이 기술하는 반면에 (가설 1-2) 결혼생활에 불만족한 사람들은 긍정적 행동보다 부정적 행동들을 더 많이 기술할 것이다.

**가설 2.** (가설 2-1) 결혼생활에 만족한 사람들은 배우자가 부정적 행동을 했을 때보다 긍정적 행동을 했을 때 이와 관련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하는 반면에 (가설 2-2) 결혼생활에 불만족한 사람들은 배우자가 긍정적 행동을 했을 때보다 배우자가 부정적 행동을 했을 때 이와 관련해서 더 많은 생각을 할 것이다.

**가설 3.** (가설 3-1) 결혼생활에 만족한 사람들은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이 부정적 행동보다 결혼생활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가설 3-2) 결혼생활에 불만족한 사람들은 부정적 행동이 긍정적 행동보다 결혼생활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것이다.

## 방법 및 절차

### 조사의 대상

조사는 두 가지 경로로 실시되었는데, 일부는 S기업에 근무하는 기혼자들에게 직접 배부한 후 기입하도록 했으며, 나머지는 서울시와 대구시,

대전시, 및 전주시의 대학생에게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지를 주도록 하여, 질문지에 응답한 조사대상이 질문지를 작성한 후 직접 우송하도록 하였다. 총 332부(남 185명, 여 147명)가 수거되었는데 결혼생활에 불만족하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수(남 24명, 여 38명)와 비슷하도록 만족하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수를 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결혼생활에 만족한 사람들 가운데 결혼생활에 불만족하다고 보고한 사람들의 성별 및 결혼기간이 비슷한 사람들을 선정(남 21명, 여 31명)하여서 최종적으로 114명(남 45명, 여 69명)이 분석되었다<sup>1)</sup>. 결혼생활의 만족 여부는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분류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사의 절차에 기술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조사대상의 평균연령은 38.4세(남 42.1세, 여 35.8세), 결혼기간은 평균 13.0년(남 14.9년, 여 11.7년)이었다.

#### 조사의 절차

먼저 최근 6개월 이내 배우자의 행동 가운데 매우 좋았던 행동과 매우 나빴던 행동을 각각 하나 이상씩 최대 5개까지 생각나는 대로 기술하도록 했다<sup>2)</sup>. 그 다음 앞서 기술한 매우 좋았던 행동과 매우 나빴던 행동 별로 맨 처음 적은 행동을 다시 기술하도록 하고, 배우자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마음속에 떠올랐던 생각이나 기분을 모

두 적게 하였다. 그리고 이 행동이 결혼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행동인지 6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결혼생활 및 배우자에 대한 만족을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sup>3)</sup>.

#### 자료의 분석

먼저 결혼생활에 만족한 사람들과 불만족한 사람들을 성별로 구분하여 이들이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을 기술한 개수, 각 행동이 발생했을 때 마음 속에 떠오른 생각 혹은 기분을 기술한 개수, 그리고 각 행동이 결혼생활에 미치는 중요도의 평균을 산출하였다. 결혼생활 및 배우자에 대한 만족을 측정한 두 문항의 상관관계가 .86으로 매우 높았기 때문에 두 문항을 평균한 값을 결혼만족 지수로 사용하였으며, 결혼생활의 만족집단과 불만족집단은 절대값 3.5를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결혼생활의 만족 여부, 행동의 긍정성(피험자 내; 긍정적 행동/부정적 행동) 및 성별이 행동을 기술한 개수, 행동 발생시 떠오른 생각의 수 및 중요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변량분석하였으며, 집단별로 사례수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type III 결과를 해석하였다.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을 기술한 개수, 각 행동이 발생했을 때 마음 속에 떠오른 생각 혹은 기분을 기술한 개수, 및 각 행동이 결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평정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결혼만족 여부 및 행동의 긍정성 외에 성별에 따

1) 전체 자료를 사용해서 분석한 결과에서 가설 3-2가 부가적으로 지지된 점을 제외하고 다른 결과는 모두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2) 행동 순서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서 매우 나빴던 행동을 먼저 기술하고 매우 좋았던 행동을 기술하게 하는 질문지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행동의 순서에 따른 효과는 없었다.

3) 중요도 및 만족은 모두 6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조사대상에게 제시된 척도값의 의미를 각 척도별로 간략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중요도(1 전혀 중요하지 않다~3 약간 중요하지 않다~4 약간 중요하다~6 극히 중요하다), 만족(1 극히 불만족~3 약간 불만족~4 약간 만족~6 극히 만족)

른 차이도 함께 보았다. 모든 분석은 SAS 8.12를 이용하여 처리되었다.

### 결 과

성별로 불만족하다고 평정한 사람들(극히 불만족에서 약간 불만족)과 만족하다고 평정한 사람들(약간 만족에서 극히 만족)을 각각 불만족 집단과 만족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이 긍정적 행동을 기술한 개수와 부정적 행동을 기술한 개수를 산출하였으며, 이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최근 배우자의 행동 가운데 좋았던 행동으로 평균 2.14개(남 2.31, 여 2.03)의 행동을 기술하고, 나빴던 행동으로 1.96개(남 2.04, 여 1.91)의 행동을 기술하였다.

만족 여부, 성별 및 행동의 긍정성에 따라서 행동을 기술한 개수가 다른지 변량분석한 결과,

만족 여부 및 행동의 긍정성의 2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 110)=12.11, p<.001$ . 따라서 만족 집단과 불만족 집단별로 배우자의 행동을 기술하는 개수에서 차이가 있는지 단순주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혼생활에 만족한 사람들은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1.73)보다 긍정적 행동(2.27)을 더 많이 기술하여서 이에 대한 가설 1-1은 지지되었다,  $F(1, 110)=14.50, p<.0001$ . 반면에 결혼생활에 불만족한 사람들은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을 기술한 개수(2.03)와 부정적 행동을 기술한 개수(2.16)에 차이가 없어서 이에 대한 가설 1-2는 지지되지 않았다,  $F(1, 110)=1.03, p<.32$ .

다음으로 만족 집단과 불만족 집단의 사람들이 배우자가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을 했을 때 각각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나 기분을 기술한 개수를 산출하였다(표 2 참조). 표 2에서 보듯이,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배우자가 긍정적 행동을 했을 때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나 기분을

표 1.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에 대해 기술한 개수

성 별	남			여			전 체		
	불만족	만족	전체	불만족	만족	전체	불만족	만족	전체
만족여부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정적행동	2.04(0.62)	2.62(1.39)	2.31(1.08)	2.03(1.15)	2.03(0.75)	2.03(0.98)	2.03(0.97)	2.27(1.08)	2.14(1.02)
부적행동	2.25(0.89)	1.81(0.67)	2.04(0.82)	2.11(0.98)	1.68(0.65)	1.91(0.87)	2.16(0.94)	1.73(0.66)	1.96(0.85)

표 2.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 이후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 혹은 기분을 기술한 개수

성 별	남			여			전 체		
	불만족	만족	전체	불만족	만족	전체	불만족	만족	전체
만족여부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MEAN(SD)
정적행동	2.50(1.28)	2.71(1.30)	2.60(1.28)	2.16(1.28)	3.13(1.05)	2.59(1.27)	2.29(1.28)	2.96(1.17)	2.60(1.27)
부적행동	2.63(1.63)	2.00(1.18)	2.33(1.46)	2.63(1.45)	2.42(1.23)	2.54(1.35)	2.63(1.51)	2.25(1.21)	2.46(1.39)

적게 했을 때 평균 2.60개(남 2.60, 여 2.59)의 생각 혹은 기분을 기술했으며, 부정적 행동을 했을 때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나 기분을 적게 했을 때에는 평균 2.46개(남 2.33, 여 2.54)의 생각 혹은 기분을 기술하였다.

생각 혹은 기분을 기술한 개수가 만족 여부, 성별 및 행동의 긍정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에서도 만족 여부 및 행동의 긍정성의 2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 110)=14.95, p<.001$ . 따라서 만족집단과 불만족집단에서 배우자의 행동 가운데 어떤 행동에 더 초점을 두어 정보처리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단순주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혼생활에 만족한 사람들은 배우자가 부정적 행동을 했을 때 보다 (2.25) 긍정적 행동을 했을 때(2.96) 더 많은 생각 혹은 기분을 기술하여서 가설 2-1이 지지되었다,  $F(1, 110)=18.53, p<.0001$ . 반면에 결혼생활에 불만족한 사람들은 긍정적 행동(2.29)과 부정적 행동(2.63)을 했을 때 떠오른 생각 혹은 기분의 개수에 차이가 없어서 가설 2-2는 지지되지 않았다,  $F(1, 110)=2.35, p<.13$ .

마지막으로 결혼생활에 만족한 사람들과 불만족한 사람들이 배우자가 한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에 대해서 중요도를 평정한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의 성별 평균을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을 보면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배우자가 기술한 긍정적 행동(4.78)과 부정적 행동(4.57)이

대체로 결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중요도 평정 결과가 성별, 만족 여부, 및 행동의 긍정성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에서도 만족 여부 및 행동의 긍정성의 2원 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 110)=3.93, p<.05$ . 따라서 결혼생활에 만족한 사람들과 불만족한 사람들이 각각 배우자의 행동 가운데 어떤 행동을 결혼생활에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행동으로 지각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에서도 결혼생활에 만족한 사람들은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4.85)이 부정적 행동(4.36)보다 결혼생활에 더 중요하다고 보아서 이에 대한 가설 3-1은 지지되었다,  $F(1, 110)=11.94, p<.005$ . 반면에 결혼생활에 불만족한 사람들은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4.72)과 부정적 행동(4.74)에 대한 중요도 평정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이에 대한 가설 3-2는 지지되지 않았다,  $F(1, 110)=0.02, p<.89$ .

## 논 의

본 연구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가정을 검증하였다. 즉, 결혼생활에 만족한 사람들은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보다 긍정적 행동을 더 반추하여 긍정적 행동이 지닌 함의를 극대화하는 반면, 결

표 3.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에 대한 중요도 평정 결과

성 별	남			여			전 체			
	불만족	만족	전체	불만족	만족	전체	불만족	만족	전체	
만족여부	MEAN	STD	MEAN	STD	MEAN	STD	MEAN	STD	MEAN	STD
정적행동	4.74(0.86)	4.81(0.74)	4.77(0.80)	4.71(0.93)	4.87(0.61)	4.78(0.80)	4.72(0.90)	4.85(0.66)	4.78(0.79)	
부적행동	4.57(1.03)	4.50(0.82)	4.53(0.93)	4.84(0.82)	4.27(1.01)	4.59(0.95)	4.74(0.91)	4.36(0.94)	4.57(0.94)	

혼생활에 불만족한 사람들은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보다 부정적 행동을 더 반추하여 부정적 행동이 지닌 함의를 극대화하는 정보처리를 보이리라는 가정이었다. 이 가정에 따라서 6개의 세부 가설을 세운 후 이를 검증하였는데, 결혼생활에 만족한 사람들과 관련된 3개의 세부 가설(가설 1-1, 2-1, 3-1)이 지지되었다.

검증된 가설들을 정리하면, 결혼생활에 만족한 사람들은 배우자가 한 행동들 가운데 부정적 행동보다 긍정적 행동을 더 많이 기술하고(가설 1-1) 부정적 행동보다 긍정적 행동을 했을 때 이와 관련된 생각을 더 많이 하며(가설 2-1) 부정적 행동보다 긍정적 행동이 결혼생활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가설 3-1).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결혼생활에 만족한 사람들이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이 지닌 함의를 극대화하는 정보처리를 통해서 만족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결혼생활에 불만족한 사람들은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과 부정적 행동에 대한 정보처리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편 결혼생활에 만족한 사람들에게서 얻은 결과가 단지 배우자가 실제로 부정적인 행동보다 긍정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결혼관계에서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이나 부정적 행동이 발생하는 빈도를 부가적으로 측정한 후 빈도의 효과를 제외하고서도 가설이 지지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빈도의 효과를 제외하고서도 만족한 사람들과 관련된 3개의 세부 가설이 지지되어서 개인의 인지기제가 결혼만족에 기여함을 입증하였다.

####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 연구 과제

본 연구에서 지지되지 않은 가설들을 연구가

지니는 제한점과 관련지어 논의하고 장래의 연구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결혼생활에 불만족한 사람들과 관련된 가설이 지지되지 않은 결과는 다음의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배우자가 한 행동에 대해서 적게 한 후 이에 대한 정보처리과정 및 결과를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절차는 특히 부정적 사건의 경우 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보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보다 덜 부정적으로 상황에 대한 정보처리를 재구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장래 연구에서는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방이 긍정적 혹은 부정적 행동을 했을 때 떠오른 생각 혹은 기분, 그 행동의 중요도를 바로 측정하여 이 결과와 만족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기분이 인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연구들에서도 기분이 기분과 일치하는 기억들을 활성화시켜서 이와 관련된 경험들을 더 많이 기억하게 한다고 가정한다(mood congruence hypothesis). 이 가정을 본 연구와 관련지어 설명하면, 결혼생활에서 불만족한 사람들은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을 기술하게 할 경우 부정적 기분이 활성화되며, 활성화된 부정적 기분은 이와 관련된 경험들을 더 많이 기억하게 하리라 예측된다. 더욱이 반추와 같이 특정 사건에 대해서 더욱 깊은 인지적 처리를 요구하는 조작은 다양한 관련 사건들과 그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기억으로부터 인출시켜 그 사건에 대한 평가 및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할 수 있다.

기분과 인지적 처리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에서도 긍정적 기분일 때에는 긍정적 기분과 일치하는 과거 사건들을 더 잘 기억하고 긍정적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긍정적 기분의 효과는 대체로 지지되었다. 그러나 부정적 기분일 때 부정적 기분과 일

치하는 과거 사건들을 더 잘 기억하며 부정적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리라는 가설은 지지되지 않은 연구들이 많다. 이에 대해서 Isen(1987)은 부정적 기억들이 덜 광범하고 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 기분이 이와 일치하는 기억들을 인출하는 효율적 단서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Hansen과 Hansen(1988)은 특히 방어적인 사람들의 경우 기억내 부정적 정서 경험의 연결망(network)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구체적이고 덜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정적 경험들이 기억으로부터 인출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볼 때 부정적 사건이 기억 내에 다양한 사건들로 잘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점, 기억으로부터 인출을 꺼리는 동기의 작동 등은 다양한 부정적 사건이나 특정 부정적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생각을 기억으로부터 인출하기 어렵게 할 수 있겠다. 또한 부정적 행동이나 이와 관련된 생각들 가운데 일부 내용은 타인에게 공개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 또한 이와 관련된 가설의 검증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결혼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을 어떤 방식으로 인지적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혼생활의 만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부정적 행동보다 긍정적 행동을 반추하게 되면 배우자의 긍정적 행동을 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하게 되어 결혼생활에 보다 만족하리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장래 연구에서는 결혼관계를 포함하여 친밀한 관계에 있는 상대의 특정 행동에 대해서 반추하게 한 후 이 행동의 중요도 및 관계만족도를 측정하는 실험 연구를 통해서 정보처리가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Arias, I., & Beach, S. R. H. (1987). The assessment of social cognition in the context of marriage. In K. D. O'leary(Ed.), *Assessment of marital discord*(pp. 109-13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Baucom, D. H., & Epstein, N. (1990). *Cognitive-behavioral marital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 Berley, R. A., & Jacobson, N. S. (1984). Causal attributions in intimate relationships: Towards a model of cognitive-behavioral marital therapy. In P. Kendall(Ed.), *Advances in cognitive-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Vol. 3, pp. 1-60). New York: Academic Press.
- Bower, G. H. (1981). Mood and memory. *American Psychologist*, 36, 129-148.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87). Affect and cognition in close relationships: Toward an integrative model. *Cognition and Emotion*, 1, 58-87.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90). Attributions in marriage: Review and critique. *Psychological Bulletin*, 107, 3-33.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93). Assessing dysfunctional cognition in marriage: A re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lief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5, 92-101.
- Camper, P. M., Jacobson, N. S., Holtzworth-Munroe, A., & Schmalings, K. B. (1988). Causal attributions for interpersonal behaviors in married coupl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2, 195-209.
- Heavey, C. L., Layne, C., & Christensen, A. (1993). Gender and conflict structure in marital interaction: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16-27.
- Holtzworth-Munroe, A., & Jacobson, N. S. (1985). Causal Attributions of Married Couples: When Do They Search for Causes? What Do They Conclude When They Do?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8(6), 1398-1412.
- Isen, A. M. (1987). Positive affect, cognitive processes, and social behavior.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20, pp. 203-253).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5b).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 3-34.
- Karney, B. R., & Bradbury, T. N. (1997). Neuroticism, marital interaction, and the trajectory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2, 1075-1092.
- Newman, H. M., & Langer, E. J. (1983). Investigating the development and courses of intimate relationships: A cognitive model. In L. Y. Abramson(Ed.), *Social-personal inference in clinical psychology*(pp. 120-137). New York: Guilford Press.
- Nolen-Hoeksema, S. (1987). Sex differences in unipolar depression: Evidence and theory. *Psychological Bulletin*, 101, 259-282.
- Nolen-Hoeksema, S. (1991). Responses to depression and their effects on the duration of depressive episod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569-582.

K C I

## **Do satisfied spouses memorize more positive behavior?**

**Kyung-Seong Lee**

**Departmen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on cognitive processing. Satisfied spouses are supposed to memorize more positive behaviors, elicit more rumination, and consider them as more important than they do negative ones. On the other hand, dissatisfied spouses are supposed to memorize more negative behaviors, elicit more rumination, and consider them as more important than they do positive ones. 114 married people(male 45, female 69) reported the most negative and the most positive behaviors in recent months, behavior-related thought (thoughts that had occurred with the behavior), and importance of the behavior. The data were analyzed to test the effects of marital satisfaction, sex and valence of behavior(positive/negative) on the number of behavior description, the number of intrusive thoughts, the importance of the behavior. The results supported the above-mentioned hypotheses on cognitive processing of satisfied spouses. What the satisfied spouses do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keys of marital satisfaction.

*Keywords : marital satisfaction, spousal behavior, cognitive processing, empirical study.*